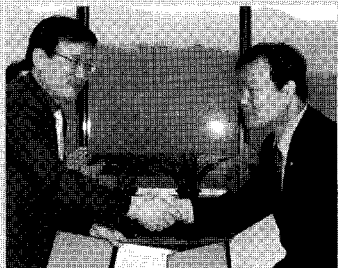


CHUKSAN News

축·산·소·식

한우

여의도 면적 한우연구소·한우공원 설립
한우협-서울대, MOU 체결 그린바이오 첨단연구
단지내 조성키로



그린바이오 첨단
연구단지 산학협
력사업의 일환으
로 전국한우협회
와 서울대 농업생
명과학대학간의

양해각서를 오늘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인해 내년 여의도 면적규모의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에 조성될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부지 안에 한우공원을 조성하고 한우연구소를 건립, 협력연구를 통해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대 측은 "기존 산업체간의 MOU 체결은 많았으나 농과대학의 특성 상 현장과의 접목을 통해 학문적 발전을 할 수 있기에 생산자 단체인 한우협회와의 MOU 체결은 의미가 크다"고 전하며 "이번 MOU 체결로 서울대 농과대학은 세계적인 인지를 다지고 협회는 한우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남호경 한우협회장은 "지금의 학문은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번 기회로 인해 한우의 소중한 가치가 다시금 재조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돈

3월 3일은 우리 '한돈' 먹는 날

양돈자조금, '국산 돼지고기 판매인증점' 고객 대상 이벤트

3월 3일은 우리돼지 한돈 먹는날

"우리돼지 한돈 60% 내고
해국전사 응원가자"

2010년 3월 3일 ~ 5월 15일까지

No.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3월 3일은 우리돼지 한돈 먹는날

행사기간: 2010년 3월 3일~5월 5일 (5일간)

행사내용: 전국 국산 돼지고기 판매인증점 판매 인증점내에서 판매장
 (1) 국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내에서 판매장
 (2) 국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내에서 판매장
 (3) 국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내에서 판매장
 (4) 국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내에서 판매장
 (5) 국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내에서 판매장

국산 돼지고기 판매인증점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우리 돼지고기 '한돈'의 소비촉진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3일을 '우리돼지 한돈 먹는 날, 3.3데이'로 명명하고 대대적인 소비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3.3데이'인 동시에 '2010 남아공 월드컵' D-100일인 3월 3일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3월 3일부터 5일까지(3일간), 전국 350개 '국산 돼지고기 판매인증 식당'에서 '우리돼지 한돈' 메뉴를 주문한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스크래치 카드를 배포하는 이벤트로 진행된다.

1등(2명)에게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A매치 경기를 가족 및 친구와 함께 상암 월드컵경기장 스카 이박스에서 응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2등(15명)에게는 축구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이 증정된다. 그 외 국산 돼지고기 선물세트(3만원 상당),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응원 머플러, 카드 지갑 등 총 2,647명에게 총 3,600만원 상당의 상품이 주어지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음료수가 무료 제공된다.

국산 돼지고기 홍보 사이트인 웰빙포크닷컴에서도 3.3데이를 기념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오는 3월 8일까지 '3.3데이'에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돼지 한돈' 맞춤 코스 요리 소개 페이지의 스크랩 이벤트를 실시하며, 이벤트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총 99명에게 우리돼지 한돈 선물세트와 영화예매권을 증정한다.

자세한 온·오프라인 이벤트 내용과 오프라인 이벤트 해당 국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정보는 웰빙포크닷컴(www.wellbeingpor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3월 3일에는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나라 대표 먹거리인 '우리돼지 한돈'을 소비자들이 더욱 많이 찾았으면 하는 바람과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양계

“양계산업 면세유 공급 늘려야”

지난해 69% 수준...농가들 불만 가중

올해 양계분야에 대한 면세유 배정량이 크게 줄면서 생산비 가중을 우려한 사육농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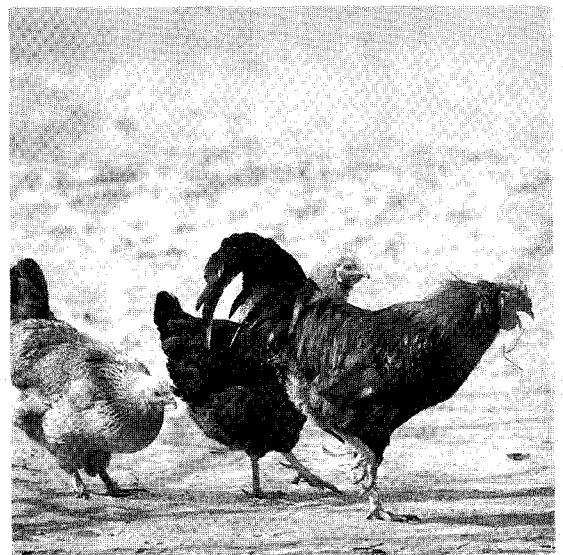
세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양계분야 면세유 배정량은 총 124만kl로 지난해 202만kl에 비해 69%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올해 양계분야 면세유 사용량이 줄어드는 데는 지난해 실사용량을 기준으로 배정물량을 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양계분야 면세유 실사용량은 배정물량 대비 71% 수준인 173만kl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계분야에 면세유 배정이 줄어들자 일선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경북 김천에서 토종닭 18만수를 사육하고 있는 손길준 씨는 “지난해 6만리터 가량을 배정받았지만 올해는 4만5천리터 밖에 배정받지 못했다”면서 “이처럼 배정량이 줄어든 이유를 지역농협에 따져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 답답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전남 나주에서 육계를 사육하는 한 농가는 “지난해에도 지역농협에 통사정을 해가며 면세유를 배정받았는데, 면세유 실 사용량이 71% 수준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그간 면세유 공급을 충분하게 해주지 않아 자비를 들여 주유소에서 비싼 기름을 사온 적이 허다한 실정에서 면세유 배정량이 줄었다는 이유로 또다시 줄이는 것은 양계농가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처사”이라고



고집었다.

이처럼 면세유 배정량이 들쭉날쭉 하는데는 면세유 배정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육계와 토종닭, 오리의 경우 사육일수와 평당 사육수수 등 사육환경이 엄연히 구분됨에도 육계와 토종닭, 오리를 똑같은 기준으로 면세유를 배정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코자 지난 10일 충남 천안시 소재 축산자원 개발부에서 대한양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등 관련업계가 모여 양계산업 면세유 배정기준 마련에 나섰다. 각자 의견만 확인했을 뿐 결론 도출은 미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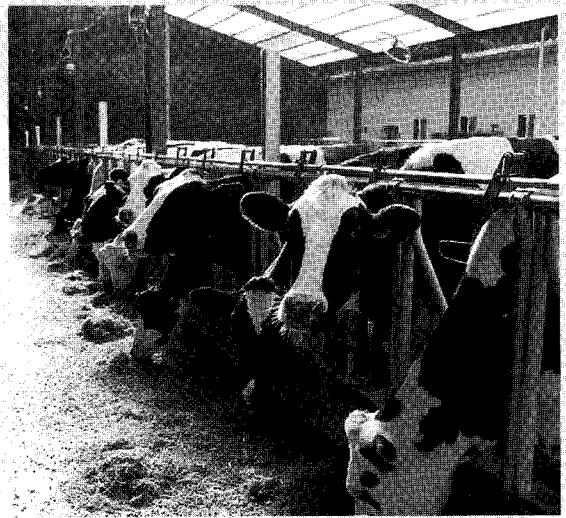
이날 회의 한 참석자는 "현재까지 양계산업에 대한 면세유 배정기준 조차 마련하지 못한 현실에 깊은 반성과 함께 조속히 합리적인 배정기준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면세유 배정이 크게 줄어든 농가들에 대해서는 추가 배정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계농가들의 면세유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면세유 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생산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낙농

살처분 낙농목장 유대 손실 보상 예고

젖소 70두 기준 현행 대비 2,400만원 추가 보상
농림수산식품부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젖소농가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한 '살처분 가축 보상금 지급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보상규정에서는 젖소의 경우 산지거래시세를



적용하지만 우유 생산가치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보상금이 타축종에 비해 낮게 형성됨에 따라 살처분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방역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했었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골자는 '농가단위 유대손실 보상' 근거를 신설 한 것으로 입식제한기간(6개월)중에 유대순수익(유대수입-생산비) 산출방법 등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젖소 70두 사육농가가 살처분으로 인해 유대 손실을 보상받는 경우 약 3,780만원으로, 현행기준 1,400만원보다 약 2,400만원을 추가로 보상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양축개량협회에 등록된 고능력 젖소의 경우도 시가 보상 원칙을 적용해 이용 잔여년수의 인정범위를 '1/2범위'에서 '전부'로 개정했다.

양봉

제 37차 정기총회 개최

한국양봉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1월 29일(금) 대전 유성 아드리아 호텔에서 대의원 448명 중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37차 정기총회(이하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회 배경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해 양봉은 아카시나무의 흉작에도 불구하고, 농수산식품부의 기타가축에서 하나의 양봉계로 분리되었을 뿐 아니라 주요 28개 대표품목 중 하나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또한 2010아시아 양봉대회를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하는 영광스런 기회도 얻었다”며 지난해의 성과를 되돌아 보았다.

이어 “안팎으로 애써주신 4만여 양봉인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협회는 이를 초석으로 양봉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곳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며 감사의 말과 포부를 전했다.

이어지는 정기총회 1부 행사에는 장관 및 회장표창 등 시상식이 진행됐다. 본 시상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표창 9명, 감사패 5명, 재직기념패 7명, 공로패 10명, 효자·효부상 3명, 장학상 4명, 자조금 거출 우수지회 및 분회 5지역(이하 사진 참조)으로 상패 및 금일봉이 수여됐다. 장학금의 경우 꽃샘식품과 여성회가 각각 300만원, 100만원을 기부하는 선행을 보여 참석자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시상식 후 이어진 2부 본회의에는 지난 36차 정기총회의 기록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감사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2010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안을



의결했다. 또한 주요 안건으로 상정된 분회명칭변경은 만장일치로 승인되어 올해부터 분회를 지부로 변경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기타토의 시간은 열린 토론의 장이었다. 협회는 건의사항 중 양봉산업발전에 인정되는 안건을 중심으로 1차 이사회를 통해 심의 후 개선 및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끝으로 배경수 회장은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한국양봉협회 제 37차 정기총회의 폐회를 선언했다.

양록

서울 명동서 국산 양록산물 홍보행사

한국양록협회, 녹용·사슴육 시식회도



한국양록협회(회장 강준수)는 지난 10일 명동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슴고기 시식

및 녹용관련 제품 시음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는 국내 양록산물의 안전성 및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산녹용 소비촉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9 회계연도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교부결정에 따라 실시됐다.

강준수 양록협회장은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양록산물의 장점과 새로운 먹거리 문화로써의 가능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적극적인 홍보행사에 나서면서 일반소비자에게 한발 다가섬은 물론, 국산녹용의 장점을 알려 소비 촉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